

몽이 잠든 잣나무

글 | 신현배
시인·아동문학가

조선 시대 세종 때의 일입니다.
 세종은 전식을 배불리 먹고 상을 묵렸습니다.
 “아침, 왜 이렇게 졸리지? 음식을 먹은 뒤라서
 몽이 나른하고 졸음이 오는구나.”
 세종은 입을 크게 벌려 하품을 했습니다.
 “알 되겠다. 잠시 눈을 붙여야겠어.”
 세종은 방 안에 누워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에 몽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푸른빛을 띤 몽이 하늘 저편에서 날아오더니,
 성균관 서쪽 뜰에 있는 잣나무 위에 살포시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몽은 매우 졸린 모양인지 눈을 감고 잠이 들
 었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허참!”
 세종은 이렇게 소리치다가 낮잠에서 깨어났습
 니다.
 암비가 이 소리를 듣고 세종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저 녀석이라니요. 무슨 꿈을 꾸셨기에
 그러십니까?”
 “희한한 꿈이오. 푸른 몽이 하늘에서 내려와
 잣나무 위에서 잠이 드는 거요.”
 “그렇습니까? 말쑥을 듣고 보니 이상한 꿈이로
 군요.”
 세종은 암비가 방에서 나간 뒤에 골똘히 생각
 에 잠겼습니다.

‘꿈은 무엇을 나타내려는 걸까? 보통 꿈이 아
 닌 것은 분명한데…….’
 세종은 고개를 가우뚱하다가 내관을 불러 말
 했습니다.
 “내 심부름 좀 다녀오너라. 지금 당장 성균관
 으로 가서 서쪽 뜰에 있는 잣나무를 살펴보고
 오너라. 잣나무 위에 무엇이 있는지…….”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내관은 세종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어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을 향해 빠르게 달렸습니다.
 내관은 성균관에 도착하자마자 서쪽 뜰로 갔
 습니다. 그곳에는 잣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잣나무 위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
 고 오라 하셨지? 가만있자, 저게 뭐야?’
 내관은 눈을 비비고 잣나무 위를 쳐다보다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젊은 선비 한 사람이 잣
 나무 가지에 두 발을 걸치고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허허, 딸자 좋네. 책보를 베고 잣나무 가지에
 두 발을 걸친 채 낮잠을 자? 어쭙? 성균관이
 떠나가라 드르릉드르릉 코까지 고네.’
 내관은 선비를 깨우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잣나무 위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만 오라
 는 세종의 당부가 있어서였습니다.

내란은 세종에게 돌아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성균관 서쪽 뜰에 있는 잣나무에는, 어떤 젊은 선비가 책보를 베고 두 다리는 나뭇 가지에 걸친 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대?”

세종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란에게 명했습니다.

“너는 다시 성균관에 가서 그 선비가 깨어나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선비가 누구인지 알아오너라.”

내란은 다시 성균관으로 갔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역자나 기다렸을까? 선비가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켜었습니다.

“잘 잤다. 역시 낮잠은 꿀처럼 달다니까.”

선비는 천천히 일어나 책보를 집어 들려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란 한 사람이 자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서였습니다.

내란은 선비와 눈이 마주치자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는 함자(이름)가 어떻게 되시오?”

“나인? 최항이라 하오. 그런데 내 이름은 왜 묻소?”

“아니, 그냥 낮잠을 하든 달게 주무시기에 갓 자기 묻고 싶었소.”

“허허, 싱거우시기는…….”

선비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내란은 다시 세종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대, 선비의 이름은 알아 왔느냐?”

“예, 전하. 그는 최항이라고 합니다.”

“수고했다. 너는 오늘 내가 시킨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전하.”

세종은 내란이 물러가자 도승지를 불렀습니다.

“도승지는 듣거라. 나는 이번에 도성에서 라거 시험을 치르려고 한다. 널리 인재를 뽑는다고 전국에 라거경을 내리도록 하라.”

“예, 전하.”

세종의 명으로 전국에 라거경이 내려졌고, 조선 팔도에서 선비들이 서울 도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종은 라거 시험장에 가서 내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최항이라는 선비가 이곳에 왔는지 살펴 보아라.”

“전하, 저기 와 있습니다.”

내란은 라거 시험장에 앉아 있는 한 선비를 가리켰습니다.

“그대?”

세종은 선비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으음, 역시 똑똑하게 생겼구나.”

세종은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꿈이 맞다면 저 선비가 틀림없이 장원 급제를 할 거야. 어디 한번 지켜볼까?’

라거 시험이 끝나, 그 결과를 알리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장원 급제는 최항이라는 선비였습니다. 워낙 글 솜씨가 좋아 만장일치의 1등으로 뽑힌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어전에서 최항에게 어사환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장원 급제를 할 줄을 미리 알고 있었다.”

“예?”

“놀랄 것 없다. 그대는 며칠 전에 성균관 서쪽 뜰에 있는 잣나무 가지에 두 방을 걸친 채 낮잠을 잤지?”

“예, 전하…….”

“나는 그 잣나무에게 이름을 지어 주고 싶다. 여타라, 성균관 서쪽 뜰에 있는 잣나무를 ‘장원백’이라 부르도록 하라.”

세종의 지시로 잣나무는 ‘장원백’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